

명사칼럼

새로운 시대, EBS의 역할



구 관 서
EBS 사장
02-526-2541

최 근 방송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일으킨 사회적 아젠다가 무엇인가는 논외로 하더라도, 이것이 방송의 영향력이 전혀 없이 커졌음을 보여준다는 사실에는 의견이 일치하는 듯하다. 그렇다면 방송이 가져야 할 덕목은 무엇일까? 매체의 속성상, 현재와 더불어 호흡해야 하는 '시의성'과 '대중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이에 앞서 문화를 선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길잡이로서의 역할이야말로, 공영방송의 최우선 덕목이 아닐까 한다. EBS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오늘날 세계 각국의 정부와 기업들은 정보와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소위 '지식' 경쟁의 대열에 나서고 있다. 지식을 누가 먼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축적되는 부의 규모가 달라지는 현실 속에서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로서는 더욱 절박할 수 밖에 없다. 지식기반사회를

구현해야 하는 과제는 이제 사활이 걸린 문제가 되었고, 필요한 교육을 언제 어디서나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공영방송인 '교육방송'의 책부가 막중할 수 밖에 없다.

EBS는 '지식채널'을 모토로 한다. EBS-TV를 시청하다보면 '지식채널 EBS'라는 케치프레이즈를 자주 확인 할 수 있다. 흔히 EBS를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방송 또는 수능 방송으로 인식하는데 이는 일부 기능과 역할에 불과하다. 올해로 공사 창립 8주년(교육방송 34주년)을 맞는 EBS는 유아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필요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다.

EBS는 2007년도 '교육제작센터'의 신설을 통해, 고품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경영지표로 <2.0 교육의 길잡이 EBS>를

표망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경영방침으로 [교육전문 EBS의 正體性 강화], [革新으로 지식적 성장], [개방과 공유를 통한 疏通과 和尵]을 내걸었다. 즉, EBS의 궁극적 목표는 우리사회에 유용한 지식 콘텐츠를 생산하여 확산시키는데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시청자들의 참여 폭을 늘리는 등 시청자와 방송사간 일상적인 소통을 이루면서 온 국민이 혜택을 누리는 '지식' 세상을 열어가고자 하는 것이다.

EBS는 이러한 비전을 향한 3가지 원칙을 가지고 변화를 추구한다. 첫 번째는 '수요자 중심주의'를 확립하는 것. 즉, 교육 콘텐츠의 기획, 제작과 서비스에 있어서 철저히 수용사의 눈높이에 맞추어 고급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를 최적의 상태로 서비스 한다는 원칙이다. 이에 대한 실천방안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공모 제도를 도입했으며, 초중고 학습 콘텐츠 제작에 있어 스튜디오가 아닌 학교와 대학 등에서 강의록 편지는 방식으로 변모를 거듭하고 있다.

둘째는 사이버 공간을 통한 서비스를 확장한다는 원칙이다. EBS는 인터넷상에서 개별학습자가 주도권과 자율성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든' 학습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서비스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EBS-TV나 라디오 배제 외에 모바일 배제인 위성 DMB 서비스를 확충하고, 앞으로 활성화 될 IPTV 도입에 따라 이에 적합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서비스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초중고 학습, 직업교육, 외국어학습 등을 망라하는 국민 대상 학습이 인터넷을 통해 구현될 수 있는 'e-Study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EBS의 핵심 과제이다.

셋째로 EBS는 지식의 통합 원칙을 견지한다. 콘텐츠 제작에 있어 서로 다른 학문의 개념 및 방법론을 통해 기존 지식체계의 분과성과 한정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동섭식' 접근법을 심화한다. 통합적인 지식의 개념을 갖추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유용한 지식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이 방송과 결합되는 것 자체가 단편적인 지식의 범위를 넘어선다.

하나의 실천 사례로, EBS는 EBS FM 영어중심 콘텐츠를 개발하면서, '영어교육'과 '방송매체를 통한 교육'이라는 두 분야의 통합 연구를 통해 보다 발전된 편성 및 콘텐츠 제작을 제시할 예정이다. 앞서 제시된 EBS의 비전과 원칙은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와 있다. 실제로 EBS는 방송 프로그램을 지식 콘텐츠화 하는 작업을 수년 전부터 수행해 왔으며, 그 생산물들이 우리 사회 내에서 전파되면서 의미있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난 2005년 9월 방송을 시작한 '지식채널E'이다. 매주 월~금 하루 3차례 EBS-TV를 통해 방송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네티즌들이 블로그, 게시판에 가장 많이 올리는 프로그램이다. 혹자는 한 번 보면 채널을 절대 돌릴 수 없는 마력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5분 동안 얻는 지식과 감동이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를 능가한다며 찬사를 보낸다.

인문, 자연, 역사, 환경과 시사 등 모든 분야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지식채널E'는 인터넷포털 교양프로그램 검색 순위에서 수위를 유지하고 있다. 방송 중 채널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는 '시청 충성도'는 84%(2008년 조사, AGB닐슨미디어리서치)로 최고 수준이다. 대개 지상파의 인기 드라마도 80%를 넘기 힘들다.

너무 주목되는 점은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학교와 대학, 연구소와 기업체 등에서 교육 콘텐츠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프로그램 시청자 게시판에 강의 교재를 활용하고 있다는 사례 소개가 줄을 잇고 있으며 세미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DVD형태로 구입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다.

추상적인 지식이 교육의 형태로 구현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일방의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형



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지식기반사회가 구현되는 단초이다.

지난 2월초 EBS는 프로그램 개편에서 또 다른 도전에 나섰다. 고품격 다큐 프로그램을 대규모로 신설한 것이다. 고품격 대형 다큐멘터리를 매일 방송하는 <다큐프라임>신설이 대표적인데, 대규모의 인력투입과 철저한 사전준비 등 내부 제사 역량을 한 번 끌어 보았다.

2월초 어린이의 심리와 행태를 실증적으로 보여준 '아이의 사생활'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후 교육, 역사, 문화, 과학과 자연 등 다방면의 다큐멘터리를 방송하는 EBS의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다행히 대내외에서 많은 호평이 줄을 잇고 있다.

이 밖에도 세계 곳곳의 문명과 자연에 새롭게 접근한 <세계테마기행>은 폭넓은 세계관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각종 지식을 전문가의 설명과 영상으로 구성한 <지식프리미>과 영단어의 유래와 활용사례를 자막, 영상과 음악으로 풀어낸 <3분영어> 등 다이제스트형 방송 콘텐츠들은 교육 콘텐츠로서 기능할 뿐 아니라 시청자들의 지적 욕구를 자극하고 있다.

지식형 콘텐츠는 'One Source Multi Use'를 실현해야 한다. 사람에 따라 콘텐츠에 대한 접근 방식과 활용형태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EBS가 생산하는 콘텐츠는 다양한 형태로 변모한다. 네티즌들에 의해 인터넷VOD 시청이 활발한 '지식채널e'는 책으로 출간되어 지난 2007년 4월에 시즌1, 지난 12월에 시즌2, 올해 8월 1일에 시즌3이 발간되어 서점가에서 스테디셀러로 자리잡았다.

매일 아침 EBS-TV를 통해 찾아가는 '생방송 60분 부모'를 비롯해서 다큐멘터리 '휴', '다큐프라임 세계의 교수', '동과 서' 등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단행본이 속속 발행되고 있다. 전통적으

로 그 교육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유아 프로그램 등 여타의 EBS 프로그램들도 DVD와 디지털 콘텐츠 형태로 시청자들에게 서비스되고 있다.

EBS는 지난 2000년 공사화 된 이래, 2004년 수능강의 전문방송인 EBS플러스1과 수능전문 사이트인 EBSi 오픈, 2005년 EBSu 위성DMB 방송 실시, 2006년 외국어학습 전문사이트 구축, 2007년 영어교육전문채널 개설 등 그 영역을 확장해 왔다. EBS가 스스로 도전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정부나 사회로부터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수능강의 방송과 인터넷은 교육복지의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았으며, 영어교육채널도 역시 영어 공교육 지원과 교육 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이렇듯 그 역할과 기능이 증대되어 EBS가 7개 방송채널과 4개의 인터넷 사이트를 보유한 공영방송사로 자리매김 되었지만, 재원구조의 불균형과 이로 인한 재원부족으로 EBS의 사정은 여전히 녹록치 않다. 70%가 넘는 재원이 출연료 광고, 영상사업 수입 등 변동 가능성이 높은 자체수익으로 충당된다.

부히, 수신료의 경우 3%만이 EBS에 할당되는데 이는 EBS 전체 세원의 8%에 불과하다. 공공재원이 절반은 되어야 제대로 된 공사 운영이 가능하다. 이 점 만큼은 국회와 정부의 관심, 국민들의 성원을 기대하고 있다.

EBS가 지식형 콘텐츠 생산과 확산에 집중한 것은 미래를 위한 효율적인 투자였고 그 전략은 주효했다고 판단한다. 지식기반사회를 지향하는 국가 진체적으로 볼 때 EBS가 축적해 가고 있는 지식형 콘텐츠는 매우 유용하다. EBS는 앞으로 지식채널의 기치를 앞세우고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고자 계속 노력하면서 EBS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 나갈 것이다.

| 기술표준 2008.8